한화투자증권

2026년 1월 12일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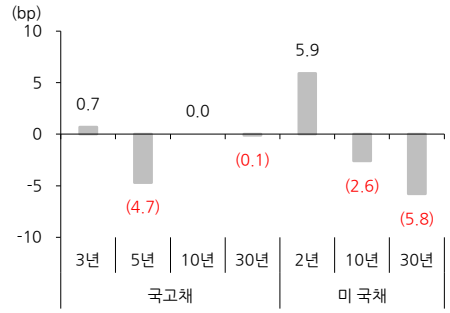
FI Weekly

긴장감 도는 국고채, 우호적인 크레딧 시장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1/9)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2.94%	2.88~3.00%	상승
국고 5년	3.24%	3.20~3.33%	상승
국고 10년	3.39%	3.33~3.43%	강보합
국고 10-3년	45.1bp	40.0~48.0bp	축소
미국 10년	4.19%	4.13~4.23%	강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반된 내외국인 입장에 긴장감 도는 국고채 시장

유의미한 상승도 하락도 없는, 버벅거리는 금리를 보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견해가 정반대. 외국인은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내국인 투자심리는 가파르게 개선 중. 국고채 시장은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

연말 개선되나 싶던 외국인 수요가 다시 위축. 12월 중후반 국고채 손절성 매도 물량이 출회된 이후, 선물과 현물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던 이들이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선물 순매도 + 현물 순매수'로 전환. 매수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환경에서 급작스러운 외국인 태도 변화는 환율 반등 때문. 이들은 변동성이 잡혀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인지, 원화 추가 약세가 진행되어서 가격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환율 방향성이 다시 잡히기 전까지 외국인들은 시장을 최소 관망할 공산이 큼

내국인은 반대. 증권사 국고채 잔고 감소세가 크게 약화. 7일 잔고는 전일 대비 3조 1,339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금리가 당시 연고점을 갱신하던 11월 6일 이후 최대 규모. 연초 자금 유입과 더불어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정 가능. 시장금리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할 만한 재료가 없는 지금은 환 리스크가 없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하기 적절한 시점. 내외국인의 상반된 입장은 계속해서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 박스권 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며, 이런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

수요는 물론 발행환경도 우호적인 크레딧 시장

1월 만기 도래 회사채(신용등급 A- 이상)는 10.1조원.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금리 하락기조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시장환경은 기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에게 긍정적. 현재 1월 만기도래 회사채 중 발행 당시 금리가 현재 시점보다 더 높은 회사채는 총 6.7조원, 이 중 차환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는 6.3조원. 발행 주체들에게 연초 시장 환경은 우호적

실제로 연초 우량 회사채의 수요예측도 흥행 중. 연초 이후 4개 기업 수요예측에서 모든 기업이 목표액을 상회하는 투자수요를 확보, 증액 발행 결정. 4개 기업의 기존 목표 모집액은 총 8,500억원, 증액 발행규모는 총 1조 5,000억원으로 기존 발행 계획 대비 76% 증가

I. 채권시장 전망

1-1. 이슈: 긴장감 도는 국고채 시장

외국인은 심리 위축, 내국인은 개선 긴장감 팽팽한 국고채 시장

유의미한 상승도 하락도 없는, 버벅거리는 금리를 보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견해가 정반대다. 외국인은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내국인 투자심리는 가파르게 개선 중이다. '움직이지 않는 금리 → 외국인 심리 위축 + 내국인 심리 개선 → 금리 등락 제한 → 움직이지 않는 금리' 순환이 깨지 않는다. 국고채 시장은 긴장감이 팽팽하다.

손절물량 받아주던 외국인 연말연초 투자심리 빠르게 위축

연말 개선되나 싶던 외국인 수요가 다시 위축되었다. 12월 중후반 국고채 손절성 매도 물량이 출회된 이후, 선물과 현물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던 이들이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선물 순매도 + 현물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현물 거래에는 국내 기관들의 본드 포워드가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심리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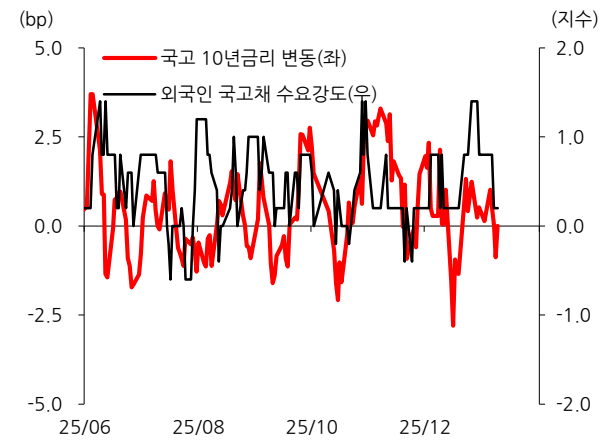
이는 채권 문제가 아닌 환율 때문

현재 채권시장은 금리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었지만, 앞으로 WGBI 자금 유입은 확실시된다. 매수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환경에서 급작스러운 외국인 태도 변화는 환율 반등이 주된 이유다. 연말 정부 대응으로 1,420원대까지 급락한 환율이 열흘 만에 1,450원대를 상향 돌파하더니 이제는 1,460원대를 위협한다.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을지, 더 올라갈지 지켜봐야 함

과거 채권시장 외국인은 원화 약세 국면을 저가매수 기회로 종종 활용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환율 반등세에서 수요가 약해진 것은 결국 이 변동성이 잡혀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인지, 원화 추가 약세가 진행되어서 가격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율 방향성이 다시 잡히기 전까지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을 최소 관망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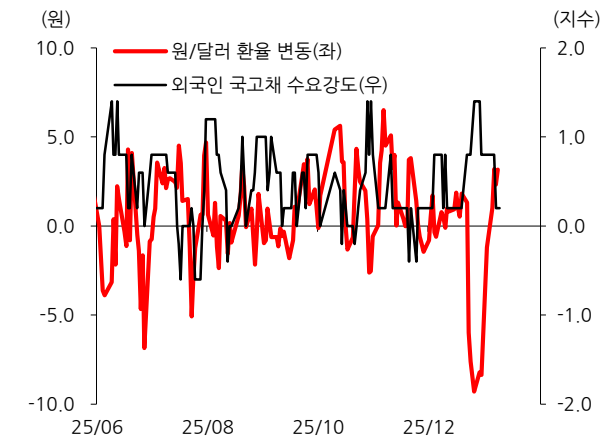
[그림1] 국고채 금리 및 외국인 수요강도 변동 추이(5MA)



주: 수요강도는 '국고채 잔고 증가 + 국채선물 순매수' = 2, '국고채 잔고 감소 또는 동일 + 국채선물 순매수' = 1, '국고채 잔고 증가 + 국채선물 순매도 = -1, '국고채 잔고 감소 + 국채선물 순매도' = -2로 계산(이하 차트 동일)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원/달러 환율 및 외국인 수요강도 변동 추이(5MA)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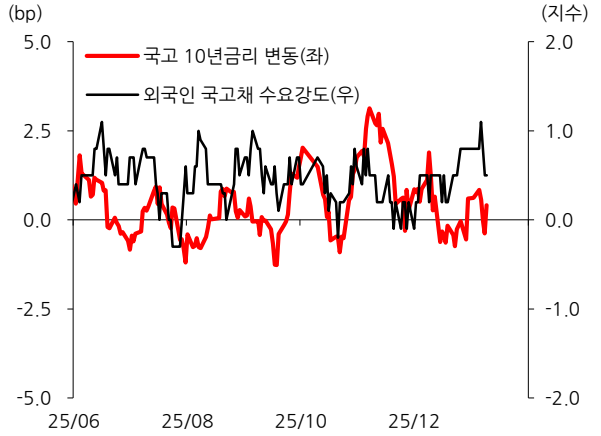
내국인은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때

내국인은 다르다. 증권사 국고채 잔고 감소세가 크게 약화 되었다. 7일 잔고는 전일 대비 3조 1,339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금리가 당시 연고점을 갱신하던 11월 6일 이후 최대 규모다. 연초 자금 유입과 더불어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시장금리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할 만한 재료가 없는 지금은 환 리스크가 없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하기 적절한 시점이다.

소강상태를 매수 기회로 활용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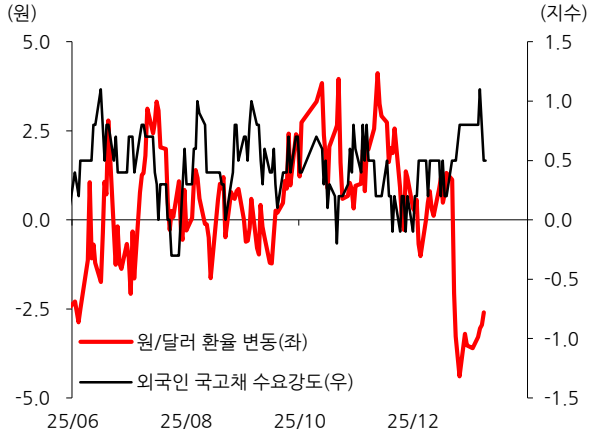
매수 타이밍이 돌아온 국내 투자자, 환율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외국인의 상반된 입장은 계속해서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이다. 박스권 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며,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면 이런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림3] 국고채 금리 및 외국인 수요강도 변동 추이(10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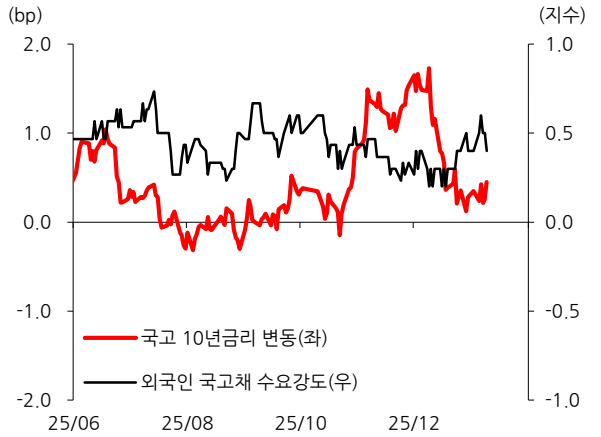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원/달러 환율 및 외국인 수요강도 변동 추이(10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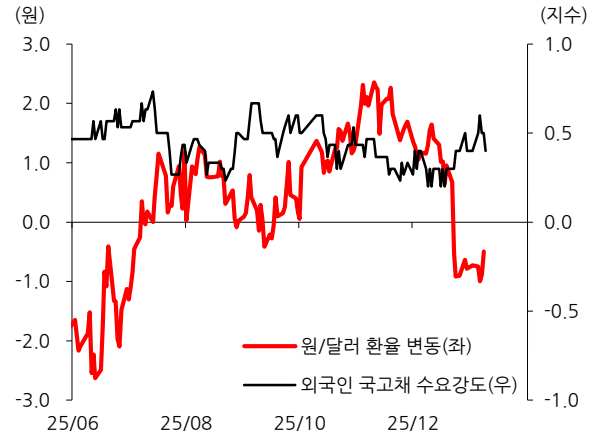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국고채 금리 및 외국인 수요강도 변동 추이(30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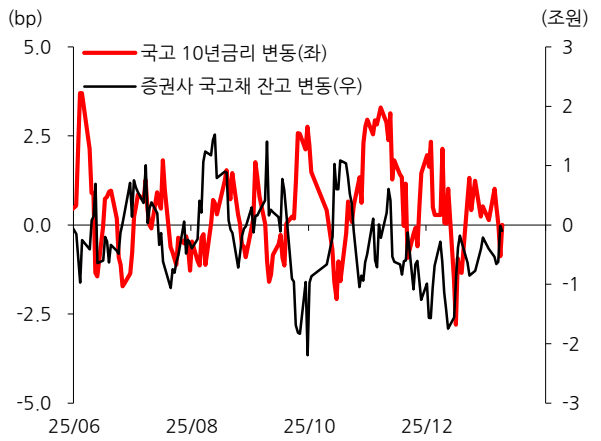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원/달러 환율 및 외국인 수요강도 변동 추이(30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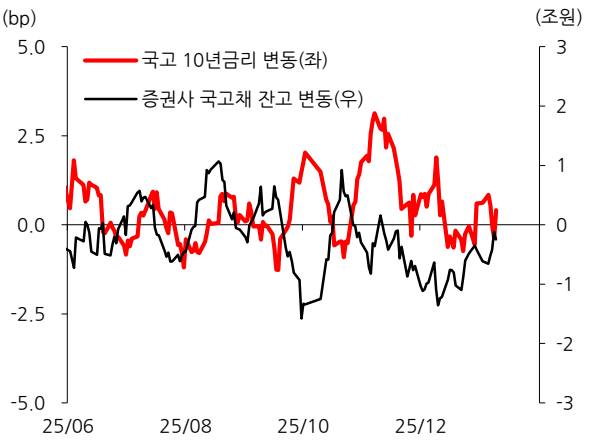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고채 금리 및 증권사 국고채 잔고 변동 추이(5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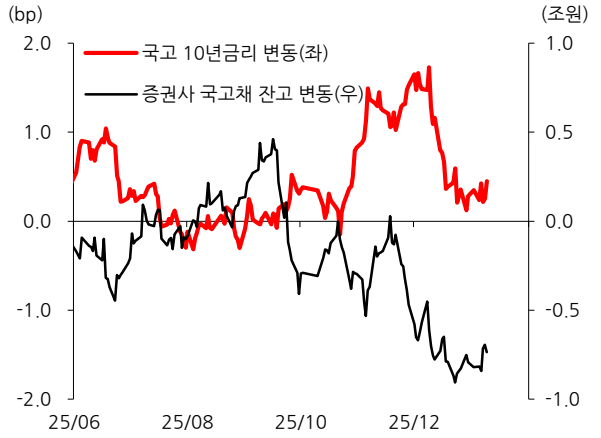
주: 국고채 잔고는 스트립 제외 잔고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고채 금리 및 증권사 국고채 잔고 변동 추이(10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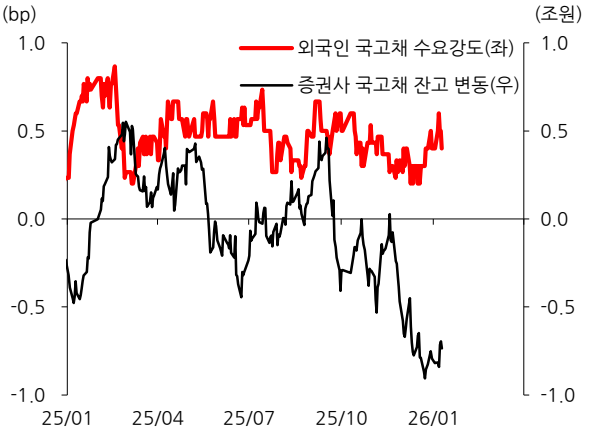
주: 국고채 잔고는 스트립 제외 잔고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고채 금리 및 증권사 국고채 잔고 변동 추이(30MA)



주: 국고채 잔고는 스트립 제외 잔고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외국인 수요강도 및 증권사 국고채 잔고 변동 추이



주: 30MA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2. 이슈: 1 월 회사채 발행 환경은 우호적

국고채와 달리 크레딧 시장은 긍정적

긴장감이 도는 국고채 시장과 달리 크레딧 시장은 준수한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연초 효과가, 공급 측면에서는 금리 레벨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발행 환경이 만들어졌다. 절대적인 스프레드 수준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수급 환경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스프레드는 축소 압력이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1월 만기 10.1조원 중 6.3조원 차환 목적 발행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신용등급 A- 이상)는 10.1조원이다. 만기구간 별로는 2년과 3년에 만기가 집중돼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금리 하락기조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시장환경은 기존 회사채를 발행,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에게 나쁘지 않다. 현재 1월 만기도래 회사채 중 발행 당시 금리가 현재 시점보다 더 높은 회사채는 총 6.7조원, 이 중 차환 목적(롤오버가 유력한)으로 발행된 회사채는 6.3조원이다.

평상시 발행 규모의 80%가 차환 목적 발행 회사채

2020년~2025년 1월 평균 회사채 발행 규모는 7.8조원이다. 평상시 발행 규모의 약 80%가 재발행 가능성이 높은 차환 목적 발행 회사채이면서, 발행 당시보다 금리 레벨 측면에서 발행 조건이 개선되었다. 발행 주체들에게 연초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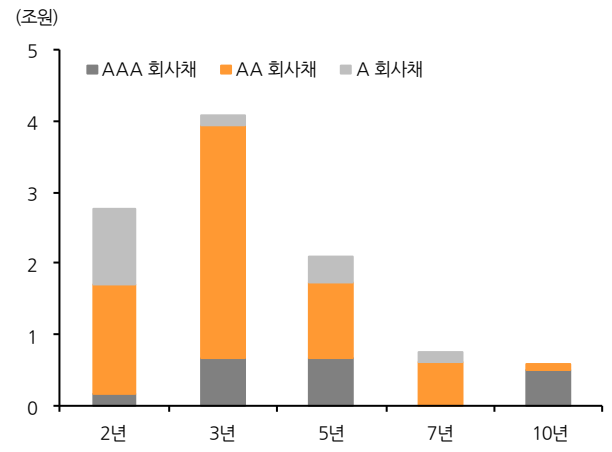
연초 수요예측 흥행 중

실제로 연초 회사채 수요예측도 흥행 중이다. 지난주 4개 기업의 수요예측이 진행됐는데, 이들 기업 모두 목표액을 상회하는 투자수요를 확보해 증액 발행을 결정했다. 4개 기업의 기존 목표 모집액은 총 8,500억원, 수요예측에서 7조 950억원을 기록해 최종 발행규모는 총 1조 5,000억원으로 기존 발행 계획 대비 76% 증가했다.

지금은 발행에 적절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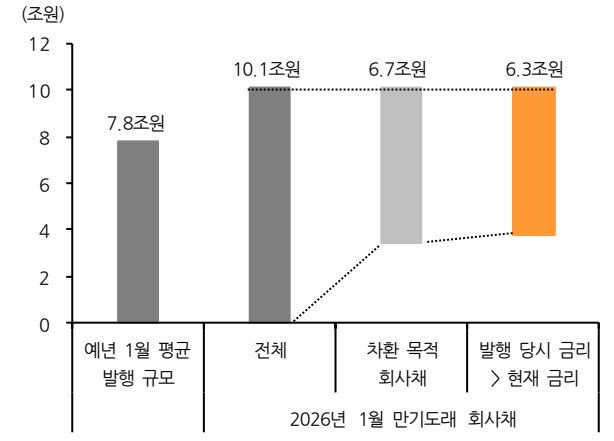
발행사 입장에서 발행 시점을 늦출 명분은 강하지 않다. 매크로, 정책환경 모두 2026년 금리의 꾸준한 하락 재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연내 '상저하고' 금리 흐름을 전망한다. 시장금리 추가 하락 여력이 제한된다면 수요 측면의 연초 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발행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11] 2026 년 1 월 신용등급별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



주: 공모 상장, 무보증 회사채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2020 년대 평균 발행 규모 대비 80%가 차환 목적



주: 예년은 2020년~2025년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전략: 수급장세 지속, 중단기 구간은 상승 가능성

국고 3년: 2.90~3.03%
국고 10년: 3.33~3.43%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2.90~3.03%, 3.33~3.43%를 제시한다. 시장 전반으로는 수급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했던 국고채 입찰이 끝난 만큼 당장의 수급 환경은 시장에 크게 비우호적이지 않다. 장기 구간은 금리 하락 압력이 소폭이나마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낙폭이 컸던 5년 구간에서는 일부 되돌림 장세 시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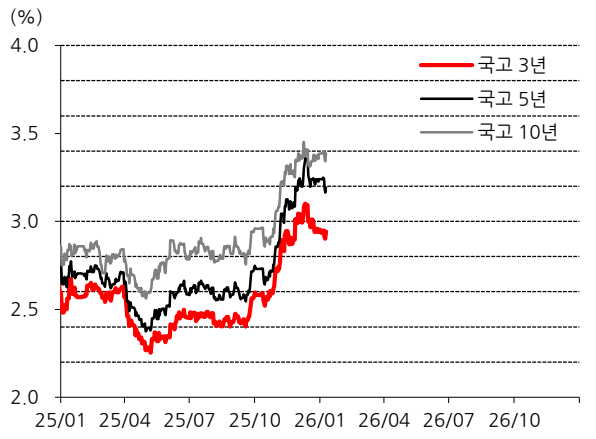
금통위 결과에 따라 국고 3년 재차 3.00%대 안착 가능성

단기금리 방향은 15일 예정된 금통위 내용에 달려있다. 기준금리 동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 통방문, 총재 기자회견 등을 통해 1) 향후 인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만 열어놓은 것인지, 지금도 추가 조정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지, 2) 만장일치 동결 여부 등의 확인이 중요하다. 우리는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국고 3년 금리는 금통위를 소화하며 재차 3.00%대 안착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도 수급장세 지속, 10년 금리 4.20% 상회 충분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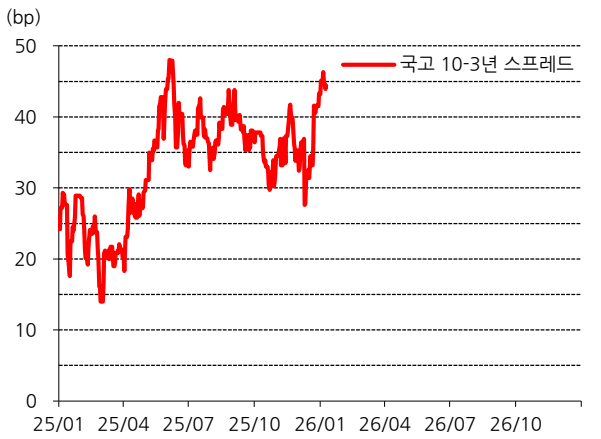
미국도 수급장세의 연장이다. 고용지표는 중립적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행 금통위처럼 1월 FOMC에서의 정책 추가 조정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많지 않다. 연준에서는 현재 통화정책을 중립 수준(또는 그에 근접한)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 우려는 작아지고, 물가 우려는 커지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미국 10년은 충분히 4.20%을 상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13]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국고 10-3 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1/9)		
국고 3 년	2.95%(-1.1bp)	2.95%(-1.1bp)	2.94%(+0.7bp)	2.88~3.00%	상승
국고 5 년	3.24%(-4.8bp)	3.24%(-4.8bp)	3.24%(-4.7bp)	3.20~3.33%	상승
국고 10 년	3.39%(+0.1bp)	3.39%(+0.1bp)	3.39%(0.0bp)	3.33~3.43%	강보합
국고 10-3 년	43.2bp(+1.2p)	43.2bp(+1.2p)	45.1bp(-0.7bp)	40.0~48.0bp	축소
미국 10 년	4.17%(-0.2bp)	4.17%(-0.2bp)	4.19%(-2.6bp)	4.13~4.23%	강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통화정책 Tracker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5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	- 경제와 물가 흐름이 전망에 부합할 경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해 나갈 것 - 일본 경제와 임금, 물가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 및 상승 전망 - 통화정책 조정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절하 흐름은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 - 올해 국내 경제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으로 인해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 - 통화정책 운영과정에 있어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정책 방향성을 적시에 설명하는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겠음
1/6	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강경파, O	-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이 얼마나 긴축적인지 파악하는 것. 개인적으로 통화정책은 중립 수준에 근접(close to neutral)했다고 판단 -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는 리스크 중 하나. 실업률도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제는 회복력 있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 임금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중 - 주거물가가 둔화 중이라는 여러 증거들이 존재 - 고용은 적은 해고, 적은 채용 환경이 이어질 것 - 실업률은 횡보 중. 물가상승률은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본인 관할 지역에서 'K자 형' 경기 모멘텀은 현실화 되었음 - 관세 측면에서 경제는 일종의 균형 국면에 진입 중 - 베네수엘라 사태는 유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아직까지 큰 영향은 부재
1/6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X	- 앞으로의 기준금리 결정은 물가와 고용 목표 모두를 감안, 정밀하게 조정(finely tuned)되어야 할 것 -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 범위 안에 위치(within range of neutral) - 양대 책무 모두 주시(bear watching)해야 할 때.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 - 상승세는 둔화되었지만 지금도 물가는 목표 수준을 상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추가 위축을 바라지는 않음 - 작년 경제는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고용은 특정 산업에서만 강력했고, 심리는 약화 - 2026년에는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소비자와 기업 심리 모두 개선되기를 기대 - 세제 변화,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금년 경제 성장률 개선 예상 - 향후 10년의 과제는 노동력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 소비자 심리를 유의해서 살펴야 함 - 오늘날의 장기 국채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공급은 재정적자와 함께 증가
1/6	Stephen Miran (연준 이사)	온건파, O	-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나오기를 기대 - 이례적인 주거물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주도. 기조적인 물가는 연준 목표에 근접 - 연내 100bp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 - 통화정책은 긴축적이며 경제를 제약 중.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이면 성장세를 싹부터 꺾어버릴(nip growth in the bud) 가능성 - 재정정책이 금년도 성장을 주도할 전망
1/8	Stephen Miran (연준 이사)	온건파, O	- 기준금리는 연내 150bp 인하가 적절 - 기조적 물가상승률은 약 2.3% 물가 자극 없이 약 백만 개 일자리 창출 가능 - 현재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지금도 통화정책은 중립 수준을 상당 부분 상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10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강경파, X	- 종료된 코로나 관련 지원 정책들은 그간 저소득층을 떠받쳐왔음. 그 이후에는 고소득층 소비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경제도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여러 측면에서 미국은 'K자형' 성장세를 시현 -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경제의 주요 현안 과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현재 물가는 2%를 크게 상회(a lot above) 중 - 비용 압력을 모두 관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음 -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점차 난관에 봉착하기 시작 - 고용 둔화를 경제 펀더멘털 약화로 볼 수 있는지는 불명확 - 적은 채용, 적은 해고(no hire, no fire)는 앞으로도 고용 환경의 핵심 요인 - 연준의 양대 책무는 어느정도 상충관계(somewhat in tension)에 있음
1/10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X	- 업황 관련 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용 성장세는 완만해졌음 - 적은 채용, 적은 해고(low hiring and low firing) 국면 장기화로 고용도 완만한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 - 이제 고용 데이터는 수치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 - 수요 증가세는 지금도 상당히 양호(quite healthy) - 고용시장이 더 많은 채용 쪽으로 기울어질지, 아니면 더 많은 해고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불분명 - 이론적으로 노동력 공급, 고용 증가세의 동시 둔화는 고용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요인 - 현재 이자 수준이 사업의 주요 문제라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음 - 생산성의 변화는 존재. 단순한 데이터의 왜곡이 아님 - 누락된 물가 보고서를 보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 더 많은 주택이 필요 - 물가 지표의 완전한 복원은 4월까지 걸릴 수 있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Ⅱ. 채권시장 동향

선진국 금리, 대부분 하락

지난주 선진국 국채금리는 물가 호조에 주목, 대부분 하락했다. 영국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가운데, 정부의 장기물 조달 비중 축소 계획 등에 강세를 시현했다. 호주의 경우 예상치를 하회한 물가 지표 영향에 RBA 긴축 우려가 완화된 점이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했다. 유로존은 CPI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했다.

미국, 되돌림 장세

미국 10년 금리는 2.6bp 하락, 4.17%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대비 변동폭은 제한되었다. 주중 시장 컨센서스를 밑돈 ISM 제조업지수는 금리 하락을 이끌었으나, 그 이후 발표된 서비스업지수 등 영향에 되돌림 장세를 시현했다.

신흥국 금리, 국가별 차별화

신흥국 채권시장은 국가별로 차별회된 모습을 보였다. 튀르키예는 정부의 연초 대규모 국채 발행 소식에 금리가 크게 상승한 반면, 멕시코 시장은 물가 지표 호조로 강세 마감했다. 브라질 국채금리의 경우 물가 둔화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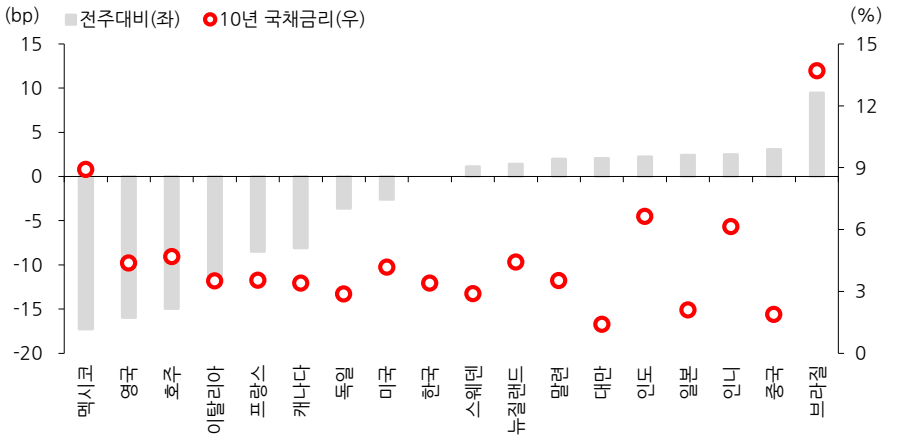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만기별 혼조 마감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로 혼조 마감했다. 장, 단기 금리는 소폭 상승했으나 5년 금리는 하락했다. 주 초반 국고채 시장은 2년, 30년 입찰을 앞두고 약세 출발했다. 이후, 무난하게 소화된 30년 입찰과 대외금리 하락,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 등에 연동되며 약세폭을 상당부분 되돌렸다. 국고 3년 금리는 전주 대비 0.7bp 상승한 2.94%, 10년 금리는 전주와 동일한 3.39%를 기록했다. 국고 5년 금리는 4.7bp 하락한 3.19%였다.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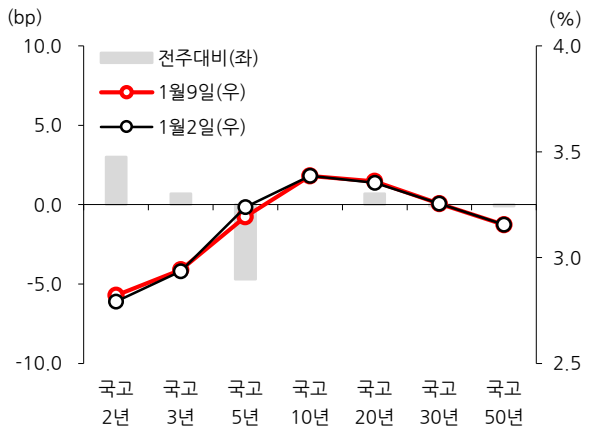
민평 기준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1.4bp, 0.2bp 상승한 2.94%, 3.39%를 기록했다. 대부분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나 축소폭은 여전채가 상대적으로 컸다. 수급 측면에서는 공사채를 중심으로 투신, 보험 순매수세가 확대되었다. 발행시장은 연초 계절적 특성 영향에 순상환 기조를 보였지만 주요 회사채 수요예측이 흥행하면서 수급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국고 3년 대비 동일만기 회사채 AA- 스프레드는 49.1bp로 전주 대비 1.2bp 축소되었다.

[그림15]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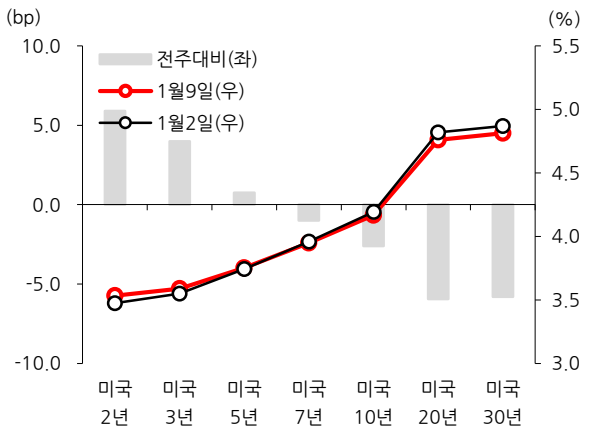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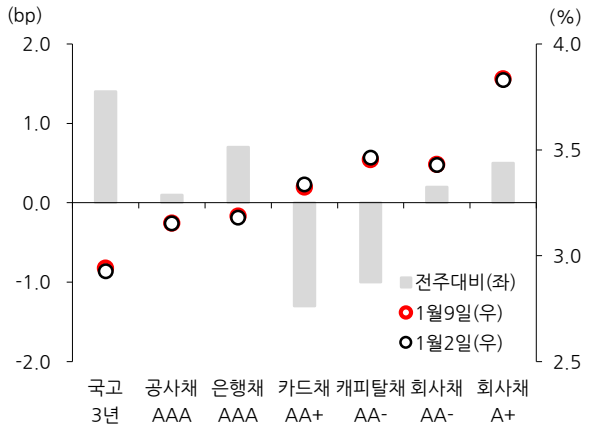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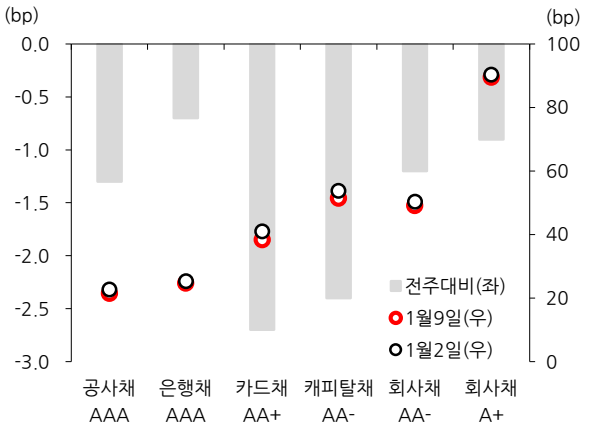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주간 주요 크레딧 금리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3년 만기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주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스프레드는 국고 3년에서 동일만기 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채권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					
	-					
	-					

주: 무보증/공모 회사 및 금융채

자료: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기업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변경등급	전망	직전등급	전망	평가사
	-					
	-					
	-					

자료: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5] 수요예측 결과

종목코드	몽목명	발행일	최종 이자율	결정 스프레드	금액 (억원)	참여수량 (억원)	단순 경쟁률(배)	신용등급	만기	기준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Ⅲ.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2 일본 휴장(성인의 날) **(유로존)** 1월 센틱스 투자자신뢰지수 (전월: -6.2, 전년: -17.7)	13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강경, X) 연설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미국)** 3년 국채 입찰 (3.61%, 간접: 72.0%, 응찰률: 2.64배) 10년 국채 입찰 (4.18%, 간접: 70.2%, 응찰률: 2.55배) 12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전월: 99.0, 전년: 105.1) 12월 CPI, Core CPI(전월비는 9월) (CPI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2.7%) (Core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2.7%) (CPI 전월비: 0.3%, 전년비: 2.7%) (Core 전월비: 0.2%, 전년비: 2.6%)	14 Musalem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강경, X) 연설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한국)** 12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3.7%, 전년비: 7.0%) (수입 전월비: 2.6%, 전년비: 2.2%) 12월 실업률 (전월: 2.7%, 전년: 3.7%) 11월 M2 통화공급 (전월비: 0.9%, 전년비: 8.7%) **(미국)** 30년 국채 입찰 (4.77%, 간접: 65.4%, 응찰률: 2.36배) 10월 신규주택판매(전월, 전년비는 8월) (예상(m): -11.9%, 전월비: 20.5%, 전년비: 15.4%) 11월 PPI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2.6%) 11월 소매판매 (예상(m): 0.4%, 전월비: 0.0%, 전년비: 3.5%) **(중국)** 12월 수출입(위안화) (수출 전월비: 8.1%, 전년비: 5.7% (수입 전월비: 1.5%, 전년비: 1.7%)	1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강경, O) 연설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미국)** 12월 기존주택판매 (예상(m): 2.1%, 전월비: 0.5%, 전년비: -1.0%) 11월 수출입물가(전월, 전년비는 9월) (수출 전월비: 0.0%, 전년비: 3.8%) (수입 전월비: 0.0%, 전년비: 0.3%) 1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예상: 1.0, 전월: -3.9, 전년: -12.6) 1월 필리델피아 연은 업황 전망 (예상: -4.0, 전월: -10.2, 전년: 44.3) **(유로존)**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0.8%, 전년비: 2.0%)	16 연준 Black Out(1/17~1/30)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Jefferson 연준 부의장(중립, O) 연설 **(미국)** 12월 산업생산 (전월비: 0.2%, 전년비: 2.5%)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월: 39, 전년: 47)
국고 3년 입찰 2조 9,000억원 통안 2년 입찰 6,000억원 은행 만기 6,500억원 카드 만기 4,700억원 회사 만기 1조 1,200억원	국고 통안 만기 9,000억원 은행 만기 4,4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2,000억원	국고 통안 1년 입찰 5,000억원 은행 만기 3,6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300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1조 3,600억원 카드 만기 900억원 회사 만기 4,550억원	국고 50년 입찰 8,000억원 통안 은행 만기 1조 1,100억원 카드 만기 700억원 회사 만기 1조 3,350억원
19 **(유로존)** 12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3%, 전년비: 2.1%) (Core 전월비: -0.5%, 전년비: 2.4%) **(중국)** 4분기 GDP (예상 전기비: 1.1%, 전년비: 4.4%) (전분기비: 1.1%, 전년비: 4.8%) 12월 소매판매 (예상(y): 1.1%, 전월비: -0.4%, 전년비: 1.3%) 12월 산업생산 (예상(y): 5.0%, 전월비: 0.4%. 전년비: 4.8%)	20 **(한국)** 12월 PPI (전월비: 0.3%, 전년비: 1.9%) **(유로존)** 1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 33.7, 전년: 18.0)	21 **(미국)** 20년 국채 입찰 (4.8%, 간접: 65.2%, 응찰률: 2.67배) 12월 주택착공(8월 기준) (전월비: -8.5%, 전년비: -6.0%) 12월 미결주택판매 (전월비: 3.3%, 전년비: -0.3%)	22 **(한국)** 4분기 GDP(속보) (전기비: 1.3%, 전년비: 1.8%, 연간: 2.0%) **(미국)** 3분기 GDP(수정치) (전기비연율 예상: 4.3%, 전기비연율: 4.3%) 11월 PCE, Core PCE(9월 기준) (PCE 전월비: 0.3%, 전년비: 2.8%) (Core 전월비: 0.2%, 전년비: 2.8%)	23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한국)** 1월 CSI (전월: 109.9, 전년: 91.2) **(미국)** 1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 1.0. 전년: -5.0) 1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전월: 52.9, 전년: 74.0)
국고 10년 입찰 2조 2,000억원 통안 만기 6,000억원 은행 만기 5,300억원 카드 만기 3,300억원 회사 만기 8,950억원	국고 통안 만기 9,000억원 은행 만기 4,4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400억원	국고 통안 3년 입찰 1조 1,000억원 은행 만기 1조 4,1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700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8,700억원 카드 만기 1,200억원 회사 만기 7,071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1조 4,700억원 카드 만기 2,200억원 회사 만기 6,690억원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